

여대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김 영 희¹⁾, 김 신 정²⁾

서 론

연구의 필요성

부모는 아동 양육자로서의 책임을 맡아 자신의 성격이나 가치 혹은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다양한 양육태도를 취하게 된다.

양육태도란 부모가 아동을 대하고, 가르치고, 돌보는데 있어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으로 정의되는데, 이때 태도는 인지적 요소, 정의적 요소, 그리고 행동적 요소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인지적 요소는 신념을 나타내고, 정의적 요소는 찬성 혹은 불찬성을 나타내며, 행동적 요소는 행위 혹은 행동의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태도를 통해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통해 그들의 양육에 대한 신념, 선호하는 방식, 지향하는 양육행동 등을 알 수 있다.

지각(知覺)이란 '느끼어 앎, 깨달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의 모든 행동은 주관적 지각의 차이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며, 어떤 사실이 실제로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엇으로 해석하여 지각하고, 또 의미를 부여하여 행동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각적 판단은 과거의 경험이나 학습에 크게 의존하므로 지각 과정에는 가치관이나 사회문화적 신념과 같은 사회적 요소가 포함된다 (Russell & Russell, 1994; 박성연, 1989; 최정훈 등, 2000).

시대적 흐름에 따라 사회경제적 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여성의 역할도 다양해지고, 핵가족의 증가로 예전에는 당연시 여겼던 출산경험이나 양육경험에 대한 가족 내 또는 친인척 간의 정보 공유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가

되었을 때 개인은 자신이 경험한 이전의 관계, 태도, 기대, 정서 또는 행동양식을 자기가 이룬 가정에 그대로 가져와 부모 또는 배우자로서 역할 하는 기능방식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부모가 제공하는 가정의 분위기나 자녀와의 상호작용은 자녀의 모든 양육유형에 대한 비형식적인 학습 환경이 된다. 이때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의 양육방식에 의해 자녀에게 그대로 전이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주관에 의해 해석되고 지각되기 때문에 부모의 의도와는 다른 형태로 전달될 수도 있다. 따라서 자녀의 입장에서 지각하게 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장발달 연속선상에서 볼 때 자녀의 양육모델로 작용하여 후에 자녀 자신의 양육태도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반영됨을 알 수 있다. 여대생은 발달시기의 특성 상 20대에서 30대 말까지 해당되는 성인기 초기로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고 배우자와 부모로서의 역할을 이행해 가는 일이 미래의 큰 발달적 과업이 된다. 그러므로 이들이 출생가족에서 성장하며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여전히 주 양육자가 어머니인 우리나라의 양육 상황에서 후에 자신의 양육태도 뿐 아니라 배우자의 양육태도에도 큰 영향을 주어 결국 부모-자녀 관계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련요인이 된다. 부모의 자녀 양육태도는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결정해 주고 자녀의 지적, 정서적, 성격적 세 측면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므로 간호사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제시하고 이를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여대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결과는 예비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내용 측면에 도움을 준다고 제시되고 있다(Vondra, Belsky, 1993; 김영희, 김신정,

주요어 : 여대생, 부모, 양육태도

1) 동국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2) 한림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교신저자 E-mail: kimsj@hallym.ac.kr)

투고일: 2003년 6월 18일 심사완료일: 2003년 6월 26일

2000; 김정희 등, 1994; 박화윤, 최재숙, 마지순, 2002). 그러므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가까운 미래에 부모가 될 여대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여대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알아봄으로써 부모의 양육태도를 깊이 이해하고 파악하여 앞으로 바람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위한 교육과 교육프로그램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된 자가보고식 질문지를 이용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의 1개 여자대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여대생 120명으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이에 동의한 학생들이었다.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자료수집은 1999년 12월부터 2000년 3월에 걸쳐 서울시내에 위치한 1개 여자대학교에서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이에 동의한 여대생 12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대상자에게는 직접 설문지를 나누어주고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을 쓰도록 하였으며 질문은 일반적 특성과 자신의 입장에서 부모님의 양육태도는 어떠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었다. 대상자가 지각하는 양육태도에 대한 작성시간과 서술내용의 양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설문지를 작성하는 데는 평균 30분 정도가 소

요되었다.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여대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내용 탐구를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내용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자는 내용분석절차에 따라 수집된 자료에서 연구목적에 적절하게 반영한 내용의 문장에 줄을 긋고 반복해서 읽은 후 연구자간에 내용검토와 논의를 거친 후 해당 내용을 추출하였다. 대상자들이 서술한 내용을 같은 의미와 비슷한 표현은 동일 주제로 분류하였으며 주제 분류과정에서 대상자들의 서술내용을 자세히 하기 위해 주제를 세분화하였다. 다음에는 주제를 포괄하는 공통특성끼리 묶어 범주화하였으며 각 내용은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여 수량적인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신뢰도는 연구자들의 연구내용을 집계하고 분석자들 간의 일치도를 측정하는 Holsti방법을 사용하였다. 내용분석에서 신뢰도는 90%이면 적당하다고 보는데, 본 연구에서 99.5%로 연구자간 일치도가 높았고 타당도는 간호학 교수 3인에 의해 검증되었다.

$$\frac{2M}{N1+N2} \times 100 = \frac{1098}{1104} \times 100 = 99.5\%$$

연구 결과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대상자의 연령범위는 19-25세로 22세가 가장 많았고 (42.5%), 출생순위는 첫째가 58명(48.3%), 둘째가 32명(26.7%)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대상자의 양육은 어머니가 85.8%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여 주 양육자로 나타났다. 가족 형태는 80.8%가 핵가족으로 대가족의 약 4배이었다.

대상자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표 1>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실수(명)	백분율(%)	특성	구분	실수(명)	백분율(%)	
연령(세)	19	1	0.8	출생순위	첫째	58	48.3	
	20	1	0.8		둘째	32	26.7	
	21	10	8.3		셋째	8	6.7	
	22	51	42.5		넷째	3	2.5	
	23	37	30.8		다섯째	1	0.8	
	24	18	15.0		무응답	18	15.0	
	25	1	0.8		주양육자	어머니	103	85.8
	무응답	1	0.8			할머니	12	10.0
가족형태	핵가족	97	80.8	대리자		2	1.7	
	대가족	23	19.2	무응답	3	2.5		

본 연구에서 대상자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

의미있는 진술은 모두 555개로 나타났으며 주제별로 분류한 결과는 50개로 다음과 같다.

‘공부에 대한 지나친 강조’(8.3%), ‘스스로 함’(5.6%), ‘엄격함’(5.2%), ‘인격존중’(4.5%), ‘맹목적 열의’(4.0%), ‘인성교육’(4.0%), ‘절도있는 생활습관’(4.0%), ‘예절교육’(3.8%), ‘자식을 위한 희생’(3.6%), ‘기대’(3.2%), ‘관심’(3.1%), ‘부모위주’(3.1%), ‘자유로움’(2.9%), ‘같이 함’(2.9%), ‘배려’(2.7%), ‘과잉보호’(2.3%), ‘적대’(2.2%), ‘체벌’(2.2%), ‘사랑표현’(2.0%), ‘격려’(1.8%), ‘가족중심’(1.8%), ‘공평하게 대함’(1.6%), ‘살아있는 경험 제공’(1.6%), ‘순종강요’(1.6%), ‘모범적인 부모역할’(1.6%), ‘남녀차별’(1.6%), ‘협력’(1.4%), ‘혜택을 줌’(1.4%), ‘무관심’(1.4%), ‘이해’(1.3%), ‘신뢰’(1.3%), ‘친밀함’(1.3%), ‘건강추구’(1.3%), ‘따뜻함’(1.1%), ‘인색함’(1.1%), ‘너그러움’(0.7%), ‘들어줌’(0.7%), ‘참견’(0.7%), ‘질책’(0.7%), ‘가사 일에서의 남녀구분’(0.7%), ‘도와줌’(0.5%), ‘미래에 대한 준비’(0.5%), ‘무시’(0.5%), ‘환경조성’(0.4%), ‘직접 키움’(0.4%), ‘비교함’(0.4%), ‘신앙생활’(0.4%), ‘선행’(0.4%), ‘개인생활 침해’(0.2%), ‘욕심조절’(0.2%).

위의 50개의 주제는 다시 18개로 범주화되었다

‘통제’(13.2%), ‘지나친 교육열’(12.3%), ‘노력함’(8.6%), ‘자율성’(8.5%), ‘가정교육’(7.7%), ‘존중’(7.4%), ‘지지’(7.4%), ‘건강한 생활양식 추구’(5.6%), ‘정성’(5.4%), ‘비인격적 대우’(5.4%), ‘감정적 결속’(3.2%), ‘부담을 줌’(3.2%), ‘냉대’(3.1%), ‘수용’(2.7%), ‘차별’(2.3%), ‘성숙한 부모됨’(1.8%), ‘구조적 결속’(1.8%), ‘심리적 친밀감’(1.1%).

각 범주화를 의미있는 자료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한 결과 ‘통제’라고 지각한 자료가 73개로 13.2%의 비율을 보여 가장 많았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통제’ 범주에서는 자녀 혼자 일을 처리하도록 하기보다는 같이 함으로써 또는 바깥출입을 혼자서는 못하게 탄탄한 보호벽을 쳐서 과잉보호하였고 특히 아버지의 권위를 중심으로 부모가 정한 원리원칙에 따라 행동하기를 위해 어리광이나 투정부리는 것은 생각도 못했으며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 행동과 태도를 형성, 통제, 평가하였고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 반드시 허락이 있어야 외출이 가능했고 항상 얽전하기를 기대했으며 친구 사귀는 것에 대해서도 좋고 나쁜 것에 대해 극성적으로 관심을 표시했고 남자친구와 사귀면 결혼해야 하는 것으로 가르쳐 왔다. 자신의 생각보다는 부모의 생각이 우선시 되었고 부모가 미리 설정해 좋은 계획에 따라 움직여야 했으며 순종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해서 말대꾸나 거역한다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고 따라서 상당히 보수적이며 엄하고 금기가 많아 인생에서의 많은 결

정 부분에 관여하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다음으로 많이 지각한 범주는 ‘지나친 교육열’ 범주로 공부 가 최우선이라 생각하여 어려운 형편에서도 남이 배우는 것은 다 배우도록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였고 성적에 따라 체벌을 하였으며 공부를 한다는 이유로 가족행사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었고 부모 자신도 자녀의 학교행사 및 과제물 작성에 열심히 참여하였다. 교육을 위해서는 대도시로 이사를 가거나 주소를 옮기기도 하였고 고등학교 3년간 매일 자녀의 등하교 길을 오가기도 한, 도를 넘는 열과 성의로 교육을 시킨 것으로 지각하였다.

반면에 ‘노력함’의 범주를 살펴보면 대상자들은 부모가 자신들에게 미리 알아서 즐겁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친구를 집으로 초대하거나 친구와의 문제, 숙제까지도 도와주려고 했으며 자주 전국 방방곡곡을 같이 여행함으로써 여러 가지 일을 밖에서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아침과 저녁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하려고 하였고 항상 웃는 얼굴로 맞아주었으며 당신이 했던 좋은 경험을 가르쳐 주려고 애쓰고 내일에 대한 준비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충고와 격려를 하였다고 지각하였다.

‘자율성’에서는 자신의 일은 스스로가 알아서 하며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도록 간섭과 강요가 없었고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하도록 했으며 공부나 성적에 대해서도 본인이 알아서 하도록 관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정교육’ 범주에서는 예절에 신경을 썼고, 사람다운 사람, 중도를 지키는 사람, 덕 있는 사람, 생명을 중시하는 사람을 원했으며, 형제 간 우애가 중요하고 올바른 인격을 갖춘 남을 돕는 착한 사람이 되도록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존중’의 범주를 보면, 자녀의 의견을 받아주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녀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고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할 뿐 아니라 원하는 일, 관심분야에 대한 자녀의 의견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판단과 결정을 도와주는, 사랑과 정성으로 딸과 아들 구분없이 모두에게 공평한 부모로 지각하였다.

‘지지’에서는 자녀의 학교생활과 친구관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긍정적인 관심을 보이고 대화를 통한 조언을 하며 경청함으로써 스스로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튼튼한 보호망이 되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자신감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건강한 생활양식 추구’에서는 일찍 일어나서 일찍 잠드는 규칙적인 생활과 항상 방을 정리 정돈하는 생활습관, 성실과 정직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며 근검 절약하여 필요한 만큼만 용돈으로 쓰고 저축하는 생활태도, 그리고 가족을 위한 종교생활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 범주에서는 자녀에 대한 헌신적인 뒷바라지와 후원을 하기 위해 본인의 인생보다는 자녀를 우선시해서 직장도 포기하는 자녀양육에 충실한 어머니로 지각하였으며, 특히 외동딸과 만딸들은 자신들이 다른 형제에 비해 특별하고 더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지각하였다.

‘비인격적 대우’로 소리 높여 욕박지르고 잘못된 일이나 고집을 부리거나 숙제를 제대로 못한 것 등에 대해서는 그전의 잘못까지 들추어 벌을 서게 하거나 체벌을 가했으며 집안에서는 관심과 기대 면에서 형제간 종종 비교하며 질책하여 분위기가 무거웠고 수시로 야단칠 때마다 감정적으로 격한 표현을 서슴치 않았고 집밖으로 나가도록 중용당한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적 결속’에서는 항상 다정하고 스스로없이 힘든 일에 대해 자녀와도 의논을 하는 친구나 언니와 같이 대하고 신체적 접촉 등을 통해 충분한 사랑과 애정을 보여주는 부모로 지각하였다.

‘부담을 줌’ 범주는 자녀 특히 만이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유별났으며 동생을 돌보는 것에 대한 책임도 주어졌으며 무엇이든 남보다 항상 뛰어나 최고이기를 바라고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냉대’ 범주는 항상 바빠서 자녀와 대화가 거의 없고 신체적 접촉을 피하며 명령조와 성 차별적 언어를 사용하고 잘한 일에 대해서도 칭찬에 인색하며 사랑이나 용돈을 주지 않는 정신물질적 지원을 하지 않는 부모, 자녀의 일상생활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부모로 지각하였다.

‘수용’ 범주에는 물건을 사거나 배우고 싶어하는 것은 거의 다 할 수 있도록 들어주었고 자녀의 개별성을 인정하여 행동의 결과보다는 동기를 중시하였으며 남자친구 사귀는 것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허락하였고 성적결과에 대해서도 조바심을 내지 않고 기다려 주어 잘못에 대해서는 체벌보다는 말로 혼내고 꾸중보다는 타이르는 편이었다.

‘차별’ 범주는 여자이기 때문에 집안 일이나 부엌일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눈에 떨 정도로 아들에 대한 관심과 편애가 있었으며 아들선호에 대한 언어적 표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숙한 부모됨’에서는 부모 스스로가 완벽한 모범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였고 부부간의 존중이라든가 공부하는 자세, 금연 금주도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어 언행일치를 실천하였으며 자녀에게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큰 기대는 미리 포기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적 결속’ 범주는 가족의 소중함과 친척간의 유대와 신의를 우선시하여 가족의 외출을 위해서는 친구와의 약속도 뒤로 미루어야 하고 대소사 때는 꼭 큰집을 방문하여 같이 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족과 먼 친척에게까지도 관심을 갖도록 강조하였다.

‘심리적 친밀감’에서는 방과 후 집 앞에서 항상 기다리는 모습과 웃는 얼굴로 대해주며 먼저 다가와 웃음을 지으며 안아주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보여졌다.

<표 2> 여대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의미 있는 자료	주제 (빈도/ 백분율)	범주화 (빈도/ 백분율)
·학교에서 옷을 입은 채 실례를 하는 일이 몇 번 있었지만 부모님은 그것을 꾸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따뜻하게 타일러	·체벌보다는 말로 혼내시고	너그러움 (4/0.7)
·자식들이 잘못했다고 매를 먼저 드시지 않고	·성적이 저조한 경우가 있더라도 야단을 치시거나 조바심을 내지 않으시고	들어줌 (4/0.7)
·내가 갖고 싶었던 건 모두 사주셨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거의 다 해주셨다	수용 (15/2.7)
·원하는 대로 다 배우게	·우리들이 바라는 것들은 항상 해 주시는	
·중학교 때 나의 남자친구를 자연스럽게 허락하실 정도로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	·어떤 행동의 결과보다 동기를 중요시	이해 (7/1.3)
·고등학교 때의 써클활동도 인정	·뭐든지 이해해주고 들어주시려고 항상 기다리고	
·자녀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각각의 개성을 인정해	
·무조건 우리의 편		
·강요에 따라 학원을 간 것이 아니라, 나의 의사에 따라 교육의 지속여부를 결정	·방향을 제시해 주고 결과를 바라볼 뿐	
·어느 때나 우리의 생각을 존중	·나의 인격을 존중	인격존중 (25/4.5)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은 강요하지 않으셨다	·부모님의 강요에 의한 것은 없고	존중 (41/7.4)
·자식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려고 노력	·의견이 다를 경우, 먼저 나의 의견을 다 들으신 후에 나의 잘못된 점 지적	
·진학문제의 경우에는 나에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것을 시켜야 한다고	
·자유롭게 나의 의견을 받아주셨고	·물건 하나를 고를 때도 본인의 의사를 어려서부터 존중해 주었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느꼈을 때만 이점은 지적		

의미 있는 자료	주제 (빈도/ 백분율)	범주화 (빈도/ 백분율)
·학원을 그만 두는 것도 내가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두게 ·모든 일을 즐기면서 취미생활을 하라는 조언을 ·우리들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서 ·장래에 있어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하고 간섭하지 않고 내가 하는 대로 지켜봐 ·이치에 어긋나지 않고 내 적성에 맞으며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라면 큰 반대를 하지 않으시고 ·우리 뜻을 그대로 따라 주셨기에 ·우리가 원하는 일, 관심 있는 분야에 먼저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의견을 우선 들으시고 판단하면서 결정을 ·가르침에 있어서 명령조는 거의 없다 ·어릴 때부터 나의 의사를 존중	인격존중 (25/4.5)	존중 (41/7.4)
·항상 날 믿으셨다 ·부모와 자식간의 믿음'과 '형제간의 믿음'을 항상 강조 ·항상 어머니는 우리를 믿고 ·나를 믿고 계신다는 사실 ·자식들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내 말이라면 믿고 인정해 주시고 ·대학에 입학하였을 때 부모님은 날 믿으셨고	신뢰 (7/1.3)	
·어머니는 항상 공평·여자라고 해서 자신의 능력을 제약할 필요가 없다고 ·아들이라고 더 귀여워하시거나 딸이라고 아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사랑과 정성을 쏟아 ·3남매를 차별 없이 ·혼을 낼 때도 어느 한쪽을 편애하지 않고 ·막내 동생과 우리를 공평하게 대하셨고 ·딸과 아들이라서 차별 대우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자랄 수 있게 ·남녀차별을 두신 적이 없으시다. ·우리 쌍둥이 형제를 키울 때 절대로 서로를 비교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함 (9/1.6)	
·사춘기 시절에 한창 연예인을 좋아할 때 어머니는 관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봐 ·학교생활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말을 많이 시키시고 ·우리들을 항상 세심하게 돌보고 살피시면서 상황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항상 경청 ·정성스런 조언도 아끼지 않고 ·내가 생활하는데 하나하나 일일이 지도 ·나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자 하여 ·내가 무슨 일을 하면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육아수첩에 나의 건강과 성장모습 등을 꼼꼼히 적어놓으셨고 ·나의 하루일과를 그날마다 똑같은 레파토리를 기꺼이 들어 ·시간이 없어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지 못할 경우에는 편지나 쪽지 등을 사용해서라도 꼭 ·하루하루 우리들과 만나려 노력 ·자주 전화를 걸어 이것저것 물어시고 ·우리들이 수학여행에서 돌아오는 날 12번도 더 집에 전화를 ·우리들의 학교생활과 교우관계에 대해 관심을 ·우리들을 옆에서 지켜보시고 ·항상 도시락에 편지와 함께 충고를 적어 ·친구가 올 때마다 항상 친구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칭찬을 지나칠 정도로 많이 ·'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우리들에게 조그만 것을 해도 '잘한다, 착하다, 넌 할 수 있어. 너희 뒤엔 항상 엄마, 아빠가 ·있다'라고 말씀 ·조그마한 일에도 격려해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는 친구들과 많이 어울리게끔 하시고 ·침체된 마음에 자부심을 ·칭찬을 아끼지 않고 ·오빠와 내가 항상 우등생이고 모범생이라는 생각을 스스로 갖게 ·자신감 가지기를 강조 ·무슨 환경에 처하든지 자신감을 가지라고	관심 (17/3.1)	
·부모님들의 튼튼한 보호망 ·전문여성이 되기를 바라신다면서 적극적으로 후원해 ·자신에게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을 하기를 바라서 ·가야 할 길을 암시해 주는 부모가 항상 옆에 ·어머니의 편지, 그것이 나를 붙잡아 주는 힘 ·자녀가 해나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후원을 ·친구들과 놀러 간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협력 (8/1.4)	지지 (35/6.3)
·자율적으로 살 수 있도록 ·제일 많이 듣던 말은 '네 일은 내가 알아서 해라' ·우리 부모님의 교육관은 자신들이 알아서 하는 것 ·모든 일을 자율에 맡기고 ·스스로 하도록 나를 내버려 두셨다 ·늘 스스로 알아서 하기를 바라셨고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씀 ·내가 독립성을 갖도록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한다는 생각 ·스스로의 자율성을 갖도록 ·무슨 일이건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기회를 ·모든 것을 나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셨으며 전혀 간섭을 하지 않으시고 ·공부는 내가 알아서 하되 나중에 책임은 네 자신이 져야 한다며 ·'자신의 일은 자신이 알아서 해야지'라는 말씀을 자주 ·어느 정도 자립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나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범위를 알 수 있도록	스스로 하게 함 (31/5.6)	자율성 (47/8.5)

의미 있는 자료	주제 (빈도/ 백분율)	범주화 (빈도/ 백분율)	
·자기의 일은 스스로 알아서하며 책임감이 강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모두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냈고 ·지나친 간섭이 자식교육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 ·자식은 자기 할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해야한다고 ·내가 직접 결과랑 부딪혀 무엇이 옳은가 하는가를 익혀가기를 바라냈던 것 ·그 일에 따르는 책임을 확실히 할 것을 말씀 ·나에게 생각하는 방향만 열어주시고 절대로 그 길로 직접 손잡고 가시는 일없이 ·너를 위해서 스스로 알아서 해라'는 말씀을 ·모든 일에 간섭하거나 챙겨주지 않고 스스로 하게 ·모든 일은 스스로 해 버릇해야 한다고 ·여행을 갈 때도 유치원 때부터 짐은 스스로 싸게 하셨고	스스로 하게 함 (31/5.6)		
·비교적 자유롭게 ·나에게는 통행금지 시간이라는 것이 없다. ·충고나 권유 등은 있지만 강제력은 없는 ·하고 싶은 것을 하라 하시고 ·공부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성적에 관해서도 일체 관여하지 않고 ·한번도 나에게 무언가를 억압적으로 강요해 보신 적이 없이 ·하려고 하는 일에 언제나 반대를 하시지는 않으셨고 ·학원이나 과외 같은 것도 강요하지 않으시고	·내가 하는 일에 크게 관여하시지도 않는다 ·강요하지 않는 ·무엇을 하라고 강요하신 기억이 없다 ·무엇을 강요하시지는 않으셨다 ·한번도 공부하라고 강요하신 적이 없다 ·어렸을 때부터 자유롭게	자유로움 (16/2.9)	자유성 (47/8.5)
·엄격함과는 다른 정서적인 면에서 나에게 안정감을 제공 ·항상 사랑을 쏟아주시고 웃는 얼굴로 대하시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돌아오면 항상 집 앞 골목에서 기다리고 ·가족에게 먼저 다가가지고 웃음을 주시려고 ·때론 친구처럼, 때론 언니처럼 대해주시다 ·엄마와는 친구 같은 사이로 자라왔고 ·항상 우리와 놀아주고 ·힘드신 것을 숨김없이 얘기하시고 의논	·어머니의 품은 따뜻하고 밝은 세계 ·기다리고 ·안아주시면서 달래주셨다. ·어머니는 집에선 나의 친구 ·우리와 다정하게 지내고 ·친구처럼 다가오는	따뜻함 (6/1.1) 친밀감 (7/1.3)	심리적 친밀감 (6/1.1)
·우리들과 많은 skintship을 가지고 ·사랑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고 ·아침에 꼭 안아주시고 출근하시고 늦게 오셔서 또 안아 ·회사에서 돌아오시면 우리들을 안고 볼에다 입을 맞춰 ·우리에게 사랑을 아끼지 않으셨고 ·자주 안아주셨고 다 큰 지금도 그러하시다 ·부담 없이 즐겁게 할 수 있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 ·나와 내 동생이 원한다면 학원을 다닐 수 있게 ·나의 신체적 장애로 인해 좌절하거나 고통받지 않게 하고 ·친구와의 사소한 문제까지도 세세하게 신경을 ·뭐든지 불편한 것은 내가 불편하다고 말하기 이전에 미리 미리 알아서 편하게끔 조치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생일이나 명절 때 조금 무리를 하시더라도 우리 모두에게 새 옷을 사 입히시고 ·새로 사귀게 되는 친구는 집으로 초대하시어 우리들처럼 잘 챙겨주시고 ·친구가 오면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밤마다 톱툰이 예쁜 치마를 만들어 입혀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나를 무조건 귀엽고 예쁘게 봐 주셨다. ·항상 뽀뽀하기를 좋아해 ·변함없는 애정을 배웠고 ·잔신경을 ·밖에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 ·정서적으로도 신경 써 ·장난감도 때 맞춰 사 주시고 ·배려 (15/2.7)	사랑표현 (11/2.0)	감정적 결속 (18/3.2)
·우리들이 흥미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해결하기 어려운 일은 부모님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결하곤 ·집에는 항상 엄마가 계셔서 내가 집에 오면 엄마가 웃는 얼굴로 맞아주곤 ·우리와 대화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를 차에 태우고 다니셨다고 ·부모님과 잦은 외출과 여행의 기회를 ·아침은 반드시 가족과 함께 먹었고 ·부모님께서서는 우리들과 함께 산책을 가거나 여행을 다니셨고 ·나와 동생을 데리고 산을 자주 가셨다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식구가 항상 식사를 같이해야한다고 ·휴일에 함께 놀아주지 못하면 집 마당에 돛자리를 깔고 소풍 분위기를 만들어서 ·저녁은 가족과 함께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가족 모두 여행을 ·지금까지 스스로 열쇠를 열고 빈집에 들어가 본 적을 한 손으로 꼽을 수 ·시장 보러 가는데 손 붙잡고 나를 꼭 데리고 가셨다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서	·숙제도 엄마가 항상 거들어 ·항상 엄마가 맞아주곤 ·아침은 반드시 가족과 함께 먹었고 ·부모님을 따라서 여행을 많이 ·같이함 (16/2.9)	도와줌 (3/0.5)	노력함 (48/8.6)

의미 있는 자료	주제 (빈도/ 백분율)	범주화 (빈도/ 백분율)	
.주말이나 방학이 되면 전국 방방곡곡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자연을 몸소 체험하게 .방학 또는 주말엔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녔다 .부모님과 여행을 많이 .봄이면 산나물 캐고 여름이면 시원한 바람을 쐬고 가을이면 갈대며 억새풀을 꺾어서 집안을 장식하고 겨울이면 눈을 보면서 신나게 달리고 .여행을 통해 자연을 많이 접할 수 있도록 .방학 때마다 캠핑을 보내고 .구름을 관찰하거나 정원의 모습 등을 관찰하면서 같은 시의 소재를 찾곤 .부모님이 자라시면서 느끼신 시골의 정다운 풍경을 가르쳐 주시려고 노력 .역사적으로 유명하고 가치 있는 곳들이나 관광지를 돌아 보며 살아있는 공부를 하게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미리 만들어 .부모가 공부할 환경을 미리 조성해 주면	살아있는 경험 제공 (9/1.6)	노력함(48/8.6)	
.부모가 없을 때는 생각하고 내일을 준비하라'는 말씀 .나와 동생의 학비마련과 결혼자금을 20년 전부터 준비해 오고 .네가 무엇을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정하고 준비하라는 말씀	미래에 대한 준비 (3/0.5)		
.도시락을 어찌다 못 싸주신 날이면 언제나 항상 반 앞까지 갖다 주시곤 .자식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노력 .학교선생님께는 어머님이 순수 만드신 이불을 .자식에게 희생을 한다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나에게 헌신적이고 .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신 적이 없이 헌신적인 뒷바라지를 .헌신적이고 .자신의 인생보다는 자식이 우선 이신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야 주무시곤 .내가 읽고 싶어하는 책이면 마다하지 않으시고 사주셨다 .자식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은 능력이 된다면 적극 후원해 .자녀양육에 충실하신 .자식들을 정성으로 키우시고 .우리에게 너무 지나치게 희생 .당신 힘 닿는데 까지 자식들 살아가는데 기본이 될만한 일들을 가르쳐 주시려고 애쓰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어려움도 감내하시고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시려는 .나에게 헌신적으로 잘해주셨다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자식이 다니는 학교와 집 사이를 오가며 헌신적으로 뒷바라지를 .자나 깨나 자신보다는 당신의 아들, 딸들이 잘 되기를 .맘이라는 점에서 나에게 많은 혜택을 주시고 .나에게 집안일을 안 시킨다 .넉넉한 가정형편은 아니었지만 많은 비싼 책들을 사주시고 .첫째인 나에게 특별한 사랑을 .집안일도 전혀 안 시키고 .내 동생보다는 내가 더 보살핌을 받고 .외동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을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내가 아기 때에는 항상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고 음식이며 옷이며 항상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었다고	자식을 위한 희생 (20/3.6)	정성 (30/5.4)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시고 .엄마가 항상 돌보고	직접 키움 (2/0.4)		
.공부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신경을 .공부를 최우선으로 하는 .한 달에 한번씩 보는 시험의 성적표를 검사 .교육열이 지나치리만큼 대단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대부분 성적걱정을 하면서 보내게 .무조건 다른 애보다 성적이 잘 나와 한다는 슬로건을 걸고 .우리집은 어려운 형편인데도 남들이 배우는 것은 다 시켰다 .아직도 학점 때문에 아버지께 꾸중을 듣고 심지어 눈물이 보일 때까지 혼난다 .어렵게 생활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교육비로는 아낌없이 지출 .자녀들 교육이 최우선인 .공부 잘함에 집착 .공부에 대하여 많은 강요로 스트레스를 주기도 .교육열은 뛰어나셨다 .어려운 가정에 힘겨운 여건 가운데서도 교육을 우선순위로 .회초리를 들면서까지 나를 공부시키고 .공부에 대한 욕심으로 .내가 상장을 타오면 크게 기뻐하시며 용돈을 더 주고 .시험을 보기 시작하면서 엄마가 점점 더 무서워 .시험을 보기 전에는 반드시 목표 점수를 미리 말을 했고, 만약 그보다 시험을 못 보았을 때는 그만큼 매를 맞아 .한글공부를 따로 집에서 하게 .우리들에게 책을 많이 강조 .책에 드는 돈은 아끼지 않으셨다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말씀을 입에 달고 다니셨고 TV도 news외에는 못 보게 .공부에 필요한 조건들은 신경을 눈에 띄게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학업에 열중이기를 .공부와 성적에 관심이 대단 .한 달에 2권씩 문제집을 풀어서 엄마에게 검사를 맡아야 .은근히 공부에 대한 부담을 많이 주시는 .내가 말을 시작할 무렵부터 하버드 대학에 가야된다고 가르치고 .그저 공부만 하라며 절대로 집안일은 시키지 않고 .공부 못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부를 위해서는 어떤 후원도 아끼지 않고 .계속 과외를 시키셨고	혜택을 줌 (8/1.4)	공부에 대한 지나친 강조 (46/8.3)	지나친 교육열 (68/12.3)

의미 있는 자료	주제 (빈도/ 백분율)	범주화 (빈도/ 백분율)
·공부하기 조금만 힘들다고 하면 즉석에서 과외를 시켜 ·공부하는데 방해된다고 TV도 못보고 음악도 못 듣고 ·명절이나 제사때 공부한다는 이유로 나는 가지 않아도 되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운데에서도 자식교육에 관해서는 한 치의 소홀함도 보이지 않으려 ·어머니에게 한글을 배우며 정말 많이도 맞았던 기억 ·항상 어린아이가 하기에는 버거운 숙제를 내어주시고 정해진 시간에 무서운 얼굴로 꼬박꼬박 검사를 자식들을 열심히 공부시켜야 한다고 늘 생각 ·자식들의 공부에 매우 열성 ·공부를 안하고 있으면 야단을 치곤 ·남다른 교육열 ·그렇게 많은 학원들을 보내셨는지 ·우리의 교육에 가장 신경을 ·우리의 공부에 대한 기대만큼은 크고 ·공부 뿐 아니라 취미생활, 여가선용에도 관련된 학원이라면 무엇이든 안 가리고 가르치시고 ·학교수업보다 더한 양질의 공부를 직접 시키고 ·어느 극성엄마에 뒤지지 않도록 ·무엇을 하더라도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안 배워 본 것이 없고 거쳐가지 않은 학원이 없을 정도로 학원과 개인레슨으로 화려 ·학교의 학부모회에도 열심히 참여하셨고 ·나와 관계된 일에 꽤 많은 활동을 하셨다고 ·나의 일에 관해서는 열심히 ·자식의 교육문제라면 맹목적인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유치원 이전부터 음악이며 미술에 영어까지 배웠다. ·TV프로그램까지도 부모님께서 어느 정도 관여하시면서 가려 주시곤 ·매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참고서를 사다주셨다. ·아무 것도 모르고 엄마 손에 이끌려 학원에 다니기 시작 ·학교의 선생님을 찾아뵙는 것은 거르지 않았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피아노 학원에 보내졌고, 2학년 때는 미술학원에, 5학년 때는 바이올린을 가르치셨다 ·대전여고에 나를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주소까지 그쪽으로 옮기셨다. ·학교에서 숙제를 내준 개구리 알을 찾으러 온 식구가 여기저기 냇가를 돌아다닐 정도 ·부모님은 교육을 위해 광주로 이사를 ·피아노와 바이올린 그리고 국악이나 민요, 사물놀이 등을 배우게도 ·피아노학원, 주산학원, 미술학원 등 많은 학원들을 다니게 ·고등학교 때 차로 50분되는 거리를 3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데리러 오시고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직접 가르치고 ·내게 엄청난 부담을 주시곤 ·말이 의 역할 수행에 대한 책임감과 기대감을 부여 ·부모님들의 기대와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나에게 많은 기대를 ·첫째인 나는 동생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부모님께 주지 받았고 ·첫째라서 무엇을 해도 항상 제일 잘하길 바라셨고 ·자식에게 기대가 컸다 ·나에게 기대하는 바가 너무 크고 요구하시는 바가 많아서 많은 것을 기대 ·남보다 뒤지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첫딸이니 만큼 기대도 크고 ·자식에 대해 욕심이 많으신 ·항상 자기 자식이 최고이기를 바라셨고 ·자식에 대해 욕심이 많으신 ·큰딸인 내게 유별난 애착과 기대를 ·무엇이든 잘하기를 바라셨다 ·딸이지만 딸이에게 거는 부모님의 기대 ·자식에 대한 지나친 관심	공부에 대한 지나친 강조 (46/8.3)	지나친 교육열 (68/12.3)
·말이인 나에게 신경을 더 곤두세우고 ·말이의 역할 수행에 대한 책임감과 기대감을 부여 ·부모님들의 기대와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나에게 많은 기대를 ·첫째인 나는 동생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부모님께 주지 받았고 ·첫째라서 무엇을 해도 항상 제일 잘하길 바라셨고 ·자식에게 기대가 컸다 ·나에게 기대하는 바가 너무 크고 요구하시는 바가 많아서 많은 것을 기대 ·남보다 뒤지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항상 자기 자식이 최고이기를 바라셨고 ·자식에 대해 욕심이 많으신 ·큰딸인 내게 유별난 애착과 기대를 ·무엇이든 잘하기를 바라셨다 ·딸이지만 딸이에게 거는 부모님의 기대 ·자식에 대한 지나친 관심	기대 (18/3.2)	부담을 줌 (18/3.2)
·혹시 누가 데려갈 지도 모른다며 언제나 집에만 있게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일은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여전히 이어지고 ·너무나 높고 탄탄한 보호벽 ·어떠한 경우에도 완전히 안전하다는 판단을 하질 수 있는 일이 아니면 무조건 못하게 ·혼자서 무얼 하도록 하지 않으셨다 ·혼자서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나에서 열까지 엄마의 손이 닿지 않으면 불안해 ·우리가 밖에 나가 있으면 하루 종일 초조해 ·공주처럼 애지중지하게 ·조금만 이상이 보여도 즉시 병원에 데리고 가서 ·학교까지 매일 데려다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연필 한자루까지도 어머니가 안 챙겨주면 안될 지경에 ·행여나 잘못될 까 하는 생각에 너무 조심스레 키웠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지나친 과보호 속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늘 어렵고 무섭게 느꼈으며 마음놓고 어리광, 투정을 부린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어 ·매우 엄격하게 ·집에 있는 음식도 아버지가 드실 음식, 어머니가 드실 음식으로 정해서 내가 아무리 먹고 싶어도 절대 건드리지도 못하게 ·외출을 할 때는 반드시 집에 들러서 허락을 받고 난 뒤에	과잉보호 (13/2.3)	통제 (73/13.2)
·매우 엄격하게 ·집에 있는 음식도 아버지가 드실 음식, 어머니가 드실 음식으로 정해서 내가 아무리 먹고 싶어도 절대 건드리지도 못하게 ·외출을 할 때는 반드시 집에 들러서 허락을 받고 난 뒤에	엄격함 (29/5.2)	

의미 있는 자료	주제 (빈도/ 백분율)	범주화 (빈도/ 백분율)
<p>·남의 집에서 밥을 먹는 것도 특별한 허락 없이는 불가능 ·상당히 억눌린 채 자랐기 때문에 ·원리원칙을 내세우며 ·외출 시 어디에 무엇을 하러 누구와 함께 가는지 꼭 말씀을 드려야 ·일단 부모님이 안 된다고 정해 놓으신 면에 있어서는 예외가 존재하지 않았다 ·늘 원칙을 중요시하고 ·원리원칙을 너무나 강조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계획에 어긋나는 것을 참지 못하고 ·혼날 때 절대 울면 안 되었다 ·남자는 조심해야 하고 사귀게 될 경우는 모두 결혼해야 되는 것처럼 가르치시고 ·울면 더욱 혼이 났다 ·무엇인가 얘기하기 위해서는 몇 번씩 망설이고 ·언제나 안전해야 한다고 ·절대적인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자녀가 행동하기를 기대 ·학교에 결석, 지각, 조퇴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정해진 행동표준을 따르기를 ·나에게 금기가 너무 많았다 ·나가기 위해서는 어머니께 허락을 받아야만 ·일찍 일찍 들어와야 하고 ·절대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그에 따라 나의 행동과 태도를 형성, 통제, 평가하고 ·‘하지 마라’, ‘해라’, ‘안 된다’가 많았던 엄마 ·대학에 와서도 통제하는 부분이 많고 ·강압적이고 가부장적인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은 늦게 집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 ·조금이라도 어둑할 때 들어오면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다. ·상당히 봉건적이고 보수적이셨던 ·보수적이고 엄하기 때문에 다가가기가 어려웠던 ·외식을 하러 갈 때 항상 아버지가 먹고 싶어하시는 메뉴를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만 ·옷을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골라서 입히고 ·엄마가 싫어하는 머리스타일을 할 수가 없었고 싫어하는 옷을 입을 수도 없었고 심지어 엄마가 싫어하는 친구도 사귀는 수가 없었다 ·우리들의 생각보다는 항상 어머니의 생각이 우선시 되었고 어머니 생각만이 옳다고 ·아버지의 독재 하에 이루어졌다 ·기분이 좋으면 우리에게 잘 대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유도 없이 혼이 나야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가 따라 주기만음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부모가 필요없다고 생각하면 절대 주지 않았다. ·아버지의 신념에 벗어나는 행동이 보였을 경우 해명할 기회없이 불호령이 떨어지고 ·부모의 계획에 의해 수동적으로 양육 ·모든 분야에서 선택권이 자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가 설정하신 테두리 안에서의 ·어떤 부모 틀에 맞추어 나를 키우고 ·어머니가 어린시절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다는 이유로 나에게 강제로 시키시고 ·엄마가 짜주시는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기만 하면 ·나의 꿈이 무엇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남들이 소위 말하는 일류대학에 들어가기를 ·나의 전공을 선택한 것은 부모의 선택이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은 부모님이</p>	<p>엄격함 (29/5.2)</p> <p>통제 (73/13.2)</p> <p>부모에 의해 좌우됨 (17/3.1)</p>	<p>통제 (73/13.2)</p>
<p>·아버지의 근본적인 생각은 ‘자식은 부모의 말을 거역할 수 없다’이다. ·공부 잘 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어른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전통과 질서유지와 복종을 중요하게 여기고 ·아버지는 가정 내에 당신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서의 권위를 알아주고 지켜주기를 바라고 ·이제까지 대든다는 것은 할 수 없었다 ·복종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부모에게 말대꾸하는 것을 허용치는 않고 ·우리 집에서 아버지의 말은 법 ·당신들이 옳다고 여기시는 일이 있으면 내가 그대로 따라야</p>	<p>순종 강요 (9/1.6)</p>	<p>개인생활 침해 (1/0.2)</p>
<p>·어머니가 나의 일기 내용을 전부 알고 있고 ·굉장히 극성이셔서 많은 부분을 관여 ·친구를 사귀는데 항상 관여 ·어떤 친구를 데리고 오면 그 친구랑 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곤 ·내가 어울려 다니던 친구들과 나의 연락을 끊기 위해 나를 집에 가두시고 학교도 보내지 않고 ·대화가 거의 없는 편 ·아이들과 놀아주지를 않으셨다 ·나에게 사랑이나 물질적인 것 등을 모두 주지 않았다</p>	<p>참견 (4/0.7)</p>	<p>참견 (4/0.7)</p>
<p>·skinship을 거의 하지 않고 ·어머니의 관심에서 열외 ·시험은 언제 보는지, 언제 끝나는지, 내가 학원에 가는지, 과외를 하는지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던 ·항상 바쁘셔서 자식들과 깊은 정을 나눌 기회도 적고 ·몸이 웬만큼 아파서는 병원이란 곳은 절대 데려가지 않으셨고</p>	<p>무관심 (8/1.4)</p>	<p>냉대 (17/3.1)</p>

의미 있는 자료	주제 (빈도/ 백분율)	범주화 (빈도/ 백분율)
·여자가 뭘...이라는 언동을 자주 하시고 ·내가 애길 하면 다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 버리고	·‘해라’의 명령조의 문장을 쓰고 무시 (3/0.5)	
·나의 행동에 대해 좀처럼 칭찬을 해주지 않았다 ·내가 잘하는 일이 있어도 칭찬이나 크게 기뻐하시는 일은 드물었고 ·아주 좋은 성적을 받아와도 많이 칭찬하지 않으셨다 ·대학에 입학해서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고	·칭찬에 인색하시고 인색함 (6/1.1)	냉대 (17/3.1)
·엄마는 늘 목소리를 높였고 ·이웃집 아줌마들이 올 때마다 나에게 창피를 주곤 ·칭찬은 커녕 가슴아픈 말씀만 ·감정적으로 분노에 찬 말들 ·무거운 집안분위기 ·온 아파트에 다 울리도록 큰 소리로 야단을 치면서 항상 하는 말인 ‘나가’를 연발 ·어머니는 언제나 한없이 두렵고 절대적인 그런 존재 ·조금만 나약한 모습에도 호통을 치셨고	·아버지는 증오의 대상 ·부모님들은 신경질이 많았고 ·내겐 욱박지르는 것처럼 ·심한 욱과 비난들... 적대 (12/2.2)	
·파리채로 맞아 빨갱게 남은 자국 ·내가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났을 때는 매를 ·어린 남동생과 싸우거나 잘못을 했을 경우에 심하게 종아리를 맞은 기억 ·조금이라도 고집을 부리면 가차없이 화를 내시고 매를 드셨다. ·어머니의 생각은 때려야 사람이 된다는 것 ·말을 듣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체벌로 다스려 ·자주 혼나고 벌을 서던 기억 ·무거운 백과사전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양팔을 들고서 서 있기 ·숙제가 조금만이라도 불충분하면 가차없이 돌아오는 체벌이나 야단	·가정은 폭력과 어두움의 섬으로 ·손찌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항상 매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은 호되게 꾸짖어 ·체벌 (12/2.2)	비인격적 대우 (30/5.4)
·언니인데 왜 못하니라는 질책을 ·그때 잘못하는 것 뿐 만 아니라 그전의 잘못까지 들추어 한꺼번에 혼내심 ·하고자 한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을 때 많은 꾸지람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은 호되게 꾸짖어 ·질책 (4/0.7)	
·나와 오빠를 항상 비교 ·잘못하는 일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꾸지람을	·비교함 (2/0.4)	
·여자가 집안일을 돕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 ·집안일을 시키려면 우선 여자인 나부터 찾고 ·오빠나 동생의 빨랫감이나 나의 빨래도 모두 나의 몫	·부역일은 내가 해야한다고 확고하게 ·가사 일에서의 ·남녀구분 (4/0.7)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눈에 떨 정도로 남동생을 편애 ·남동생의 출생 이후 부모님의 모든 관심이 남동생에게로 ·부모님 및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든 관심은 남동생에게로 ·남아선호사상이 깊은 집안환경 때문에 ·막내인 남동생을 대하는 엄마의 태도에서 차별을 ·항상 아들이기를 기대하시는 부모님의 바램 속에서 태어난 후남이가 분명 ·오빠는 남자라서 하찮은 심부름도 들어주시지만 나는 틀리고 ·집안에서도 작지 않은 남녀간의 구분이	·‘아들이 확실히 틀러’ 등 ·남녀차별 (9/1.6)	차별 (13/2.3)
·나의 가정교육에 각별히 신경을 ·자식들에게는 늘 가정교육을 똑바르게 받은 자식이 되기를 ·가족 간의 관계에서는 효와 우애를 강조 ·할머니와 부모님께 버릇없이 행동했을 때 더 꾸중을 들곤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았거나 물건을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 ·수저는 어른이 먼저 들어야 하고 ·가장 밀바탕이 되는 가르침은 예절 ·어렸을 때부터 잘 알든, 잘 알지 못하든지 인사를 하도록 교육 ·입에 음식이 들었을 때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집안에서 여자다움에 대해서 강조 ·가장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예의를 아는 사람 ·아침마다 조부모님께 깎듯이 문안인사를 올렸고 ·조부모님 앞에서는 큰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조차 조심 ·어른들에게 존댓말 쓰지 않는 것은 너무나 싫어하시고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는 것을 깨닫도록 ·가화만사성을 가훈으로 ·예절을 중요시 ·어른들에게 버릇없이 행동하는 것만큼은 매를 ·예의와 법도를 중요시 ·어른을 깎듯이 모시도록 늘 훈계를	·예절교육 (21/3.8)	·가정교육 (43/7.7)

의미 있는 자료	주제 (빈도/ 백분율)	범주화 (빈도/ 백분율)
·거짓말을 안 하도록 확실히 교육 ·강조하신 것 중의 하나는 올바른 인격을 갖는 것 ·도리에 어긋나지 말게 행동할 것을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가 바로 올바른 인간형성 ·형제사이에 사이 좋게 서로 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세상사는 잇속을 챙기기보다는 자연과 더불어 살 줄 알고 사물을 감성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가장 강조한 것이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라는 것 ·욕하지 말고 고운 말 쓰며 ·자연을 사랑하고 동물의 생명을 소중히 해야한다고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 ·눈에 보이는 외모를 쫓지 말고 인격을 키워나가기에 힘쓰라고 ·우리 4남매간의 우애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고 ·하나의 인격체로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온화하고 덕 있는 사람이 되기를 ·어머니께서는 나에게 하루에 한가지의 착한 일을 할 것 ·남을 도우면서 착하게 살라고	·항상 똑바로 살아야한다고 강조 ·사람의 도리를 다 할 것을 강조 ·사람됨을 중시 ·정직한 삶을 늘 강조	인성교육 (22/4.0) 가정교육 (43/7.7)
·친구와의 약속이 먼저 되어 있어도 가족의 외출을 위해서는 당연히 취소해야 하는 것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강조 ·먹을 것을 항상 가족 먼저 챙기고 ·친척과 친지들과의 유대와 신의를 중시 ·큰 명절 뿐 아니라 방학 때는 꼭 할머니 댁을 찾아뵙어야 하며 ·먼 촌수의 친척들에게도 관심을 갖기를 바라셨다 ·우리 가족 지상주의자	·친지들의 대소사를 같이 하는 일을 중시하는 ·생일 때는 가족이 함께 올라왔고 ·친척간의 유대를 공고히 하고	선행 (2/0.4) 가족중심 (10/1.8) 구조적 결속 (10/1.8)
·스스로 모범이 되어서 실천하기도 ·오빠나 내가 술이나 담배 등을 배우게 될까봐 금연, 금주를 ·공부하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부모님께서 먼저 책을 보고 계시거나 ·완벽한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 ·자식들에게 ‘하지 마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부모님의 기분에 좌우되어 혼내시는 일은 없고 ·엄마와 아빠는 서로를 어떻게 존중하는 것인지도 잘 보여 ·우리 앞에서 아들이 아니어서 서운하다는 표시를 한번도 하지 않았	·행동과 말씀이 일치하시므로	모범적인 부모역할 (9/1.6) 성숙한 부모됨 (10/1.8)
·자식은 원하는 대로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떤 부분은 포기할 하시곤		욕심 조절 (1/0.2)
·절도 있고 규칙적인 생활 ·돈을 소중히 하는 절약정신 ·방을 어지르는 것은 결코 용서가 되지 않았다 ·늦잠 자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집’ 이었다 ·어머니의 절약과 저축으로 ·정직을 강조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하찮게 여기지 말고 절약하라고 ·생활면에서 성실과 정직을 강조 ·내게 한 달 동안 필요한 금액을 주셨고 남은 돈은 모두 내가 관리 ·항상 돈을 아껴 쓰고 저축하라고 ·용돈은 내가 재량껏 돈을 간수하여 사용할 수 있을 만큼씩만 올라가고 ·일찍 자는 것을 강조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만이 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 ·생활습관 하나하나 가르쳐 ·성당에 다닐 것을 매우 강조 ·매일 새벽 기도회에 가서서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를 ·자녀의 건강에 있어서는 지나칠 정도로 관심을 ·이유식을 만들 때 항상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되어 있게 하시려고 노력 ·우리의 건강에 유난히 관심을 ·조급이라도 몸이 안 좋으면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하셨고 ·밥 한 공기씩 꼭꼭 먹고 ·한약이며 몸에 좋은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사다 먹이시고	·용돈도 필요한 만큼만 주셨고 ·절약해야 한다는 가르침 ·청결을 강조 ·항상 정리하는 습관을 ·근검절약, 물자 절약하라 ·남에게 절대 돈을 빌리지 못하게 ·무척이나 절약하시면서 우리를 키우신 ·일찍 일어나야	절도있는 생활습관 (22/4.0) 건강한 생활양식 추구 (31/5.6) 신앙생활 (2/0.4) 건강 추구 (7/1.3)

논 의

양육이란 적절한 보살핌과 애정 어린 협력을 제공하는 노력으로 대를 이어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이어지는 가정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부모의 역할이다. 성장 발달과정에서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가 갖게 되는 양육에 대한 지식이나 적절한 판단 등을 포함하는 인지적 구성요소인 양육관에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그들의 지각 결과는 후에 자신의 자녀양육 시 나타나게 되는 양육행동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

자녀의 연령이 20대 초반에 이르게 되면 '성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보장되며 신체적 성숙과 더불어 성적인 성숙이 현저하여, Erikson이 주장하는 친밀감 대 고립감의 단계에 접어들고 이성간의 교제와 결혼준비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를 위한 능력을 갖추어야 할 시기이므로(최정훈 등, 2000) 여대생을 중심으로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이들의 지각과 관련된 연구는 여전히 주 양육자가 어머니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많은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여대생들이 진술한 555개의 의미있는 자료는 50개의 주제로 축약되었으며 이를 분석한 결과 34개의 주제('너그러움', '들어줌', '이해', '인격존중', '신뢰', '공평하게 대함', '관심', '격려', '협력', '스스로 함', '자유로움', '따뜻함', '친밀함', '사랑표현', '배려', '도와줌', '같이함', '살아있는 경험 제공', '환경조성', '미래에 대한 준비', '자식을 위한 희생', '혜택을 줌', '직접 키움', '열의', '기대', '예절교육', '인성교육', '선행', '가족중심', '모범적인 부모역할', '욕심조절', '절도없는 생활습관', '신앙생활', '건강추구')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내용이었으며, 16개의 주제('공부에 대한 지나친 강조', '과잉보호', '엄격함', '부모위주', '순종강요', '개인생활 침해', '참견', '무관심', '무시', '인색함', '적대', '체벌', '질책', '비교함', '가사 일에서의 남녀구분', '남녀차별')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내용이었다. 이는 양육행동의 속성을 애정결속, 영양지도, 교육, 돌봄, 보호, 훈육, 부모 역할획득의 긍정적인 속성과 비 일관적인 훈육, 애정결속 형성불능, 과잉보호의 부정적 속성으로 개념을 분석한 김순구(2002)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여대생들의 지각도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고루 포함되어 유사하게 분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50개의 주제는 18개로 범주화되었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12개의 범주에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수용과 애정 및 믿음을 기반으로 성숙한 부모가 되도록 노력하는 부모로 지각하는 범주로 '노력함, 자율성, 가정교육, 존중, 지지, 건강한 생활양식 추구, 정성, 감정적 결속, 수용, 성숙한 부모됨, 구조적 결속, 심리적 친밀감'이 포함되며 이들은 또한 자녀관련 일방

향인 8개의 범주(자율성, 가정교육, 존중, 지지, 건강한 생활양식 추구, 정성, 수용, 구조적 결속)와 부모관련 일방향인 2개의 범주(노력함, 성숙한 부모됨), 그리고 부모-자녀 관련 양방향인 2개의 범주(감정적 결속, 심리적 친밀감)로 구분되며 이들이 총 범주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1.2% 이었다. 나머지 6개의 범주는 부모의 양육태도로 구속적이고 공부만을 강조하며 그 외의 것에는 무관심하고 나아가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부모로 지각하는 범주로 '통제, 지나친 교육열, 비인격적 대우, 부담을 줌, 냉대, 차별'이라는 개념으로 표현되었고 총 범주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9.5%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5, 6학년생 1722명을 대상으로 한 이숙, 박성연(1988)의 연구결과 부모의 양육태도 구성요인을 '온정 요인'과 '거부권위주의 요인'으로 명명하고 온정과 거부권위주의 요인이 양극적인 단일차원이 아니라 서로 분리되어 있는 두개의 차원을 구성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와 같이, 여대생 역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 온정적인 지각과 권위주의적인 지각을 나타낸 한편, 결혼 적령기인 성인기 초기의 여자 대학생이라는 입장과 관련해서 '엄격함'이라든가 '부모에 의해 좌우됨', '순종강요' 등의 주제를 포함하는 부정적인 '통제' 개념을 가장 많이(13.2%) 지각하였고, 사회전체의 관심사인 대입시험을 통과한 대학생으로서 '공부에 대한 강조', '맹목적 열의' 등 부정적인 지각인 '지나친 교육열'을 두 번째로 많이(12.3%) 지각한 것이 특징적이라 하겠다. 이 두 가지 범주(25.5%)는 전체 범주 중에서도 첫째와 둘째를 차지할 뿐 아니라 부정적 지각(39.5%)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 연구대상 여대생들은 일반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61.2%)은 하고 있으면서도 단일범주로는 전체 범주 중에서 부정적 지각(39.5%)이 첫 번째(13.2%)와 두 번째(12.3%)를 차지할 정도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박화윤 등(2002)의 남녀대학생 354명을 대상으로 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만족도 연구결과, 보통(33.3%), 만족(43.2%)과 매우 만족(14.4%)하는 것으로 지각하였으며 불만족(7.9%)과 매우 불만족(1.1%)으로 나타난 것보다 본 연구결과에서 대상자인 여대생들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더 부정적으로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화윤 등(2002)의 연구에서 의존적 양육태도와 통제적 양육태도로 지각한 대학생들이 애정적인 양육태도로 지각한 대학생들보다 미래 자녀에 대한 자신의 양육태도에서 의존적 양육태도와 통제적 양육태도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 자신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이 미래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 형성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고, 자녀양육에 대한 예비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응답이 51.7%(여 55%, 남 49%), 배우는 것이 좋지만 필수는 아니라는 응답이 46.0%(여 43.8%,

남 47.7%)로 여학생이 양육에 대한 책임의식을 더 느끼는 것으로 보여졌다.

관련 양육행동의 선행요인 중 양육에 대한 인지능력, 준비도, 부모로서의 자아개념 등이 포함됨(김순구, 2002)을 볼 때 인지능력과 자아개념, 준비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화적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개인은 누구나 자기가 속한 집단의 사회문화가 자기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관습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요구받기 때문에 우리 나라처럼 급속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문화와 생활도 바뀌는(정영숙, 박영애, 이경희, 1998) 환경에서 이러한 변화된 사회적 인식에 근거한 자율적이고 상호존중의 양육태도를 인지함으로써 부모로서의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과 양육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강화되도록 예비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지지하고 간호현장에서 간호사의 적극적인 교육과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론

개인의 양육태도 및 행동은 성장기 동안 경험하게 되는 원가족에서의 양육형태에 영향을 받으며 형성되는 양육관에 의거하여 주로 나타나게 되나 사회정보망 발달로 급격히 이루어지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이전과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사회 문화적 가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아, 양육에 있어 부모가 어떻게 양육했느냐와 양육대상인 자녀가 어떻게 지각했느냐가 서로 다르므로 효과적인 예비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적용을 위해서는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를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여전히 우리 나라에서의 주 양육자는 여성인 어머니로 배우자의 양육태도에도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으므로 미래 주 양육자가 될 여대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이 어떠한 지 분석한 후 부모로서의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과 양육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19-24세이며 어머니가 주 양육자이었다(85.8%).

여대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555개의 의미 있는 자료는 50개의 주제로 축약되었으며 이를 분석한 결과 18개로 범주화되었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12개의 범주에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수용과 애정 및 믿음을 기반으로 노력하는 부모로 지각하는 범주로 '노력함, 자율성, 가정교육, 존중, 지지, 건강한 생활양식 추구, 정성, 감정적 결속, 수용, 성숙한 부모됨, 구조적 결속, 심리적 친밀감'이 포함되며 나머지 6개의 범주는 부모의 양육태도로 구속적이고 공부만을 강조하며 그 외의 것에는 무관심하고 나아가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부

모로 지각하는 범주로 '통제, 지나친 교육열, 비인격적 대우, 부담을 줌, 냉대, 차별'이라는 개념으로 표현되었다.

이상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 연구대상 여대생의 3/5은 자율성, 존중, 지지, 정성, 수용, 감정적 결속 등 자녀를 애정으로 돌보고 부모로서 노력하고 성숙됨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양육태도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대상 여대생의 2/5는 너무 공부만 강조하며 부담주는 그리고, 통제하며 비인격적인 대우와 냉대, 차별하는 부모로서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의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강화 시키고 동시에 부정적인 양육태도에 대해서는 양육적이고 지지적인 사람과의 관계맺음과 긍정적인 사회적 양육가치 변화의 적용이 가능한 바람직한 예비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상호중재를 통해 개 개인에 맞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양육은 부모의 역할 중 하나이므로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 세대에 걸쳐 지각된 부모양육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순구 (2002). 양육행동 개념분석, 아동간호학회지, 8(4), 414-421.
- 김영희, 김신정 (2000). 여대생의 자녀 양육관, 여성건강간호학회지, 6(2), 269-290.
- 김정희, 남기덕, 박영호, 송명자, 송인섭, 심응철, 윤가현, 운영화, 이철원, 이현진 (1994). 심리학의 이해, 학지사.
- 김재희, 주은선 (2002). 지각된 양육태도의 세대간 연구와 부적응 청소년 집단과의 비교, 한국심리 학회지: 발달, 14(4), 1-18.
- 김정택, 민정식 (1996).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심리유형과의 관계, 한국심리유형학회, 3(1), 16-32.
- 민하영, 유안진 (1999).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대처행동이 부모-관련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9), 1-12.
- 박성연 (1989).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개발에 관한 일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4), 151-165.
- 박화윤, 최재숙, 마지순 (2002). 부모역할, 자녀양육과 양육태도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아동학회지, 23(5), 65-76.
- 손희 (2001).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사회적 귀인성향과의 관계, 아동교육, 10(1), 56-66.
- 이숙, 박성연 (198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아동학회지, 9(2), 61-94.
- 정영숙, 박영애, 이경희 (1998). 가정생활 문화에 대한 의식과 실태: 한국인의 양육문화, 한국생활과학회지, 7(1), 39-51.

최정훈, 이훈구, 한종철, 윤진, 정찬섭, 오경자 (2000). 인간행
동의 이해: 심리학, 법문사

Russell, A., & Russell, G. (1994). Coparenting Early School-
Age Children: An Examination of Mother-Father Inter-
dependence Within Families, Developmental Psychology,

390(5), 757-770.

Vondra, J., Belsky, J. (1993).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In T. Luster & L. Okagaki(Eds), Develop-
mental Origins of Parenting: Personality and Relationship
Factor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1-33.

Woman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Their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Kim, Young-Hee¹⁾Kim, Shin-Jeong²⁾

1)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ongguk University, 2) Associated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Hallym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show the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s perceived by daughters(woman college students), who were in the process of pursuit of reasonable values, ethics and preparing for marriage and settling down, and another purposes were to help them to have positive attitudes toward their child-rearing in the future and set up preliminary parenting education program. **Method:** The subjects were 120 woman college students who were freshmen to junior in one university in Seoul. Using the self-report questionnaire, data were collected from December in 1999 to March in 2000. The contents which subjects wrote down were categorized by content analysis method. **Result:** 1) The age range of subjects were 19-25 years old and main rearer was mother(85.84%). 2) The perception of parent's child-rearing by subjects were revealed 555 statements and then tied together 50 themes: 'emphasizing on studying hard'(8.3%), 'doing by oneself'(5.6%), 'sternness'(5.2%), 'respect of personality'(4.5%), 'eagerness'(4.0%), 'humanity education'(4.0%), 'moderating in daily living'(4.0%), 'propriety education'(3.8%), 'sacrificing for children'(3.6%), 'expectation'(3.2%), 'concerning'(3.1%), 'parent-centered'(3.1%), 'giving a free hand'(2.9%), 'sharing with'(2.9%), 'consideration'(2.7%), 'over-protectiveness'(2.3%), 'hostile attitude'(2.2%), 'corporal punishment'(2.2%), 'expression of parental love'(2.0%), 'encouragement'(1.8%), 'family-centered'(1.8%), 'treating fairly'(1.6%), 'offering live experiences'(1.6%), 'exacting obedience'(1.62%), 'exemplary parental role'(1.6%), 'sexual discrimination'(1.6%), 'cooperation'(1.4%), 'giving favors'(1.4%), 'indifference'(1.4%), 'understanding'(1.3%), 'confidence'(1.3%), 'intimacy'(1.3%), 'pursuit of health'(1.3%), 'warm-hearted'(1.1%), 'stinginess'(1.1%), 'broad-mindedness'(0.7%), 'granting'(0.7%), 'interfering'(0.7%), 'reproach'(0.7%), 'distinction of sex in household affairs'(0.7%), 'help'(0.5%), 'preparing for the future'(0.5%), 'disregarding'(0.5%), 'making environment'(0.4%), 'bringing up a child personally'(0.4%), 'comparing'(0.4%), 'religious life'(0.4%), 'good deed'(0.4%), 'invasion of privacy'(0.2%), 'controlling desire'(0.2%). 3) 50 themes were categorized by 18 categories once more: 'control'(13.2%), 'crazy for education'(12.3%), 'endeavoring'(8.6%), 'autonomy'(8.5%), 'home education'(7.7%), 'esteem'(6.67%), 'support'(6.67%), 'pursuit of healthy daily life'(5.6%), 'earnestness'(5.4%), 'disregarding personality'(5.4%), 'emotional bonding'(3.2%), 'imposing a burden'(3.2%), 'inhospitality'(3.1%), 'acceptance'(5%), 'discrimination'(2.3%), 'mature parenthood'(1.8%), 'strengthening family tie'(1.8%), 'psychological intimacy'(1.1%). 4) On the basis of this study, 3/5 of subjects(61.2%) perceived their parents had mature and autonomous child-rearing attitudes, and on the other hand 2/5(39.5%) of them perceived controlling, just forcing to work harder and personally disregarding attitudes. **Conclusion:** So we need to offer them nursing implementation such as preliminary parenting education program and parenting consulting like to strengthen positive perception and help improving in realistic, developmental child-rearing attitudes.

Key words : Women college student, Parent, Child-rearing attitude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Shin-Jeong

Department of Nursing, Hallym University

1, Okchun-dong, Chunchon, Kwangwon-do 200-702, Korea

Tel: +82-33-248-2721 Fax: +82-33-248-2734 E-mail: kimsj@hallym.ac.kr